

## 특별한 우리교회

- 제1장 신분 확인
- 제2장 존재의 정체를 회복한 교회
- 제3장 개혁의 본질을 깨달은 교회
- 제4장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안 교회
- 제5장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교회
- 제6장 예언된 선지자가 있는 교회
- 제7장 대쟁투와 재림교회

## 머리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남은 교회 진리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세상을 준비시키는 대임을 맡는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 합니다.

금년(2005년) 봄에 한국 연합회 봄 기도 주간에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맡아서,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획에 맞추어 “특별한 우리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내년도에 정체성 확립에 관한 내용으로 사경회를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한다는 말을 듣고, 홍성선 목회 부장께서 연합회에서 한 말씀 내용을 책으로 써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는 내년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준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없어서 선뜻 대답을 못하였으나 또 한 번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림 연수원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곧 컴퓨터에서 그때 한 설교 강목을 찾아 부지런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여 글을 완성하고 하나

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새롭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필자로서는 엄청난 즐거움이겠습니다.

정말 우리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하여 예언된 대로, 있어야 할 그때에, 있어야할 그 장소에서, 있어야할 그 방법대로 있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된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주 예수님의 재림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준비하게 하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함에는 본문에 기록한대로 온 세상이 저항세력으로 맞서 있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서부터 모든 사회 구조가 우리의 임무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서 엘리야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필요를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이 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연합회 목회부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이 글을 책으로 만드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24일

Desert Hot Springs 서재에서

김명호 識

## 제1장 신분 확인

1) 사물들은 저마다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신분은 그 사물이 바로 그 사물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 신원이 확실할 때 그로 더불어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자기의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분확인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있고 혈연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그가 소속된 인종과 집안과 민족과 국가가 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다. 2)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날 인종과 국가와 민족과 가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선택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일단 선택되어진 다음에 그는 선택되어진 그 신분에 의하여 규정되고 평가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일련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삶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고 계시한다.

1) 신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 사람은 자기가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3) 사실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랬다.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 지구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어 존재하게 된 것이다. 4) 그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닌 존재였다(창1:26,27, 시8:5, 놀3:38).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런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뱀을 매개로하여 접근한 사단은 사람에게 더 좋고 높은 신분을 보장하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창3:1-5). 5) 사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시조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러나 결과는 좋고 높은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사단의 제안을 택하였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한 그 창조적 선택을 거절한 것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것을 거절한 것이므로 그들은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6)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녕 죽으리라는 말의 뜻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존재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없어지게

3) 사람의 존재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4) 처음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5)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인 시조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지 아니한 것처럼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시조는 그렇게 되었다(창3:17-19).

7)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여, 창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구 창조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사45:18).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거하기 않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헛것이 된다.

8)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동시에 선악과를 먹고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치지에 이른 사람의 존재 반납도 받으실 것이며,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라고 하신 말씀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시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 마지막 아담을 보내어 첫 아담을 대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9)하나님은 이일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존재를 반납하는 일을 유예하시기로 하셨다. 이 유예된 기간동안 사람은 여자의 후손의 대속을 믿음으로 상실한 존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 이 기간을 은혜의 때라고 하며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고후 6:1,2). 이것이 오늘날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영원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다. 10)영원은 무한한 시간이

---

7) 사람이 존재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목적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8)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9) 시간은 무엇이며 왜 있게 되었습니까?

10) 영원은 어떤 상태를 뜻합니까?

아니라, 시간이 완성된 것이며, 시간이 정복된 것이다. 그때가 되기까지 시간은 지속될 것이며, 11)그런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생명이 반납된 아담의 후손들이 그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다. 이 기회마저 거절한다면 그들은 12)결국 영원히 존재를 상실할 것이다. 그들은 전혀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될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불 못의 실상이다.

13)그러나 아직도 은혜의 때가 지속되는 동안 사람은 하나님 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의 신분을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 대표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물론 아브라함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에게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전파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이어지게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14)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위탁하셨다. 이것은 “유대인의 나음”(롬3:1)의 첫째가는 것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고 보관되며 전파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

11) 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12)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13)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14) 유대인이 나온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다.

15) 그들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그 특권을 의식한 나머지 그들 외의 민족들과 지나치게 구별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오직 선민의 특권의식만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지경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신분을 올바르게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듯 하다.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은 인간을 사망에서 회복하여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야를 맞이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 16) 그들의 지나친 특권의식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야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들은 영광의 왕으로 와서 천하를 지배하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런 자의적인 소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확실하게 예언한 고난의 종 메시야에 대한 말씀들은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국가적으로 거절하고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신이하였다. 17)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15) 유대인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 유대인이 메시야를 맞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7) 유대인이 국가적으로 가이사를 왕으로 선택한 말씀은 어디 기록 되었습니까?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 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 주니라”(요19:12-16).

이런 결과로 유대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연합하여 시편 2편의 예언을 이루는 열방 중에 하나가되었음을 계시해주고 있다. 18)<sup>“</sup>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 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혀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행4:25-28).

19)민족적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진리를 보전하고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그

18)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19) 민족적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었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이었습니까?

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로 세우실 것이었다(마16:16-18).

20)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는 성립되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아갔다. 계시록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일곱 촛대로 표상된 일곱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다. 21)그 일곱 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이어갈 교회들이며 그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계시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기는 옛말 민족적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는데, 옛 이스라엘을 미혹한 사단이 역시 교회 이스라엘도 미혹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정치 도구화하여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휘두르며 진리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치달았다. 성령께서는 충성된 적은 무리들을 통하여 때가 되었을 때에 개혁을 이루셨지만 전적으로 진리로 돌이키지 못한 교회가 또 그 정체를 잃게 되자, 예언된 때인 2,300주야 끝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역사의 종말에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을 일으키시고 역사의 종말에 있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엘리야 운동을 전재할 사람들이다(이상 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 참고).

그러나 사단이 가만히 있을 이가 없다. 이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스미듯 들어오더니 이제는 제법 졸졸 소리를 내며 제법

20) 신약의 교회는 언제 성립 되었습니까?

21) 누가 역사적 교회를 주관하였으며, 교회는 그 주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도량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다. 정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보루(堡壘)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 확립하고 위탁한 진리를 힘차게 올바르게 증거하는 사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에 한국 재림교회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힘스는 것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믿는 도리를 확인 확신하고 진리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킬 중인으로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특별한 우리교회라는 말씀을 준비했으며 이 말씀이 읽고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22) 우리는 시편 12편의 내용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연구로 마침내 13편의 내용과 같은 찬양을하게 되기를 바란다.

### 제 12 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냑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2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사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

22) 시편 12, 13편의 내용을 잘 읽고 현대 사회상과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 4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  
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 5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  
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 지대에 두리라 하  
시도다
- 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 7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  
이다
- 8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도다

### 제 13 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 2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  
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금하기를 어느 때까  
지 하리이까
- 3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  
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 5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 제2장.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한 교회

계14:6,7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 음을 가셨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당연하면서도 벽찬 일을 추진하고 있다. 무언가 정체성을 상실해 가거나, 정체성이 희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때에 우리교회의 처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교회에 특별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이 장에서는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한 교회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 1. 두 종류의 종교

재림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교회가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참으로 특별한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특별한 교회라고 믿는다.

23)나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것은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종교와 진화론을 신봉하는 종교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한 유일하신 신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종교는 모두 진화론적 종교일 수밖에 없다. 유일하신 신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했다고 가르치는 계시의 책은 성경 외에 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조 계시를 그대로 믿지 않는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볼 수 없다.

24)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일지라도 창세기 1, 2장의 계시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 계시와 다른 이론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진화론을 믿는 범주에 둘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화적 창조론이든지 창조적 진화론이든지, 말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옛새 동안 천지를 창조한 계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계시한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인간 이성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한다. 성경의 계시는 해석이 필요하다. 25)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것을 찾는 일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창40:8). 그러므로 성경 자체의 해석을 뒤로하고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이도록 해석하는 것은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하신바가 아니다.

이런 해석들은 모두 안식일을 없애려는 사단의 감화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26) 안식일을 기억

---

23) 저자가 두 종류의 종교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진화론 종교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25) 성경 해석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겔20:20). 27) 그래서 비록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예수 이름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의 창조주 여호와로 믿지 않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라도 진화론적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늘 성소에 대한 이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자, 나는 속죄소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범례를 보았다. 그 궤 양쪽 끝에는 두 천사가 섰는데, 그들의 날개는 속죄소 위로 펼쳤으며,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다. 나를 따르는 천사는, 모든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거룩한 율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예수님께서 궤 뚜껑을 여셨을 때, 나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바라보았다. 나는 십계명의 한복판에 있는 네째 계명이 부드러운 후광(後光)으로 둘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천사는 말했다. ‘그것은 열 가지 계명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밝혀 주는 유일의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때, 안식일의 기초도 놓여졌다.’ 나는, 28)안식일이 언제나 지켜져 왔을 것 같으면 이교도나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계를 우상숭배에서 지켜 주었을 것이다”(교증 1권 76).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29) 그는 파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26)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27)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진화론 종교 범주에 들게 됩니까?

28) 세상에 왜 이교도와 무신론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하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 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초기 65).

30)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 결국 그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진화론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한대로 믿지 않으면 그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31)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극은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이 말은 자기 존재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척 알고 싶은 것이다. 32)하나님께서 자기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근원을 모르는 것이다. 33)그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을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을 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는 진화론을 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진화론을 인정하고

---

29)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30) 사람은 어떻게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까?

31) 사람들의 기본적인 비극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32) 사람이 자기 존재의 정체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3) 사람은 존재 문제를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사실에 직면합니까?

있을 것이 되고 만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게 된다. 결과 즉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비극인 것이다. 창조주를 믿을 마음은 없고, 결국 진화론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만일 진화론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이 사실이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너무 비참하다. 왜냐하면 미생물이니까. 좀더 진화한 상태로 말한다 해도 짐승이 아닌가.

34) 오늘날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착각하고 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물론 창조론도 과학이 아니다. 그들은 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일 뿐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과학을 하든지, 창조론적 사고방식으로 과학을 하는 것이다. 진화론도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신앙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진화론을 믿는 것이 되고 만다. 사실상 중립적 위치는 없다.

35) 성경은 이미 기원전 천년 경에 진화론적 발상에 대한 사실을 계시하고 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49:2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훠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삶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유 10,11).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훠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

34) 진화론이나 창조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35) 성경은 진화론에 대하여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데서 멸망을 당하며”(벧후2:12).

성경은 진화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36)진화론이 인류에게 끼친 공헌이 있다면 생명 경시현상을 부추긴 것이다. 오늘날 인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무의식중에 사람의 의식을 밀바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미생물에 불과하지 않는가? 우리가 개미 한 마리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쉽게 죽이고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도 그런 정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의 미생물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본능으로 아는 것을 진리인 냥 주장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고 멸망으로 나아간다고 계시하고 있다.

37)성경은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계시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계시한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사람이 무엇이판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판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판을 썼으셨나이다”(시8:4,5).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

36) 진화론이 생명에 대한 어떤 사상을 형성해놓았습니까?

37) 성경이 계시한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6,27) 만물의 영장을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상의 만물을 다 르시며 돌보며 살도록 한 것이다.

우리교회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교회이다. 그래서 특별한 교회이다.

## 2. 특별한 우리교회

우리교회는 2,300 주야에 대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일어난 교회이다.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개혁된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일어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대로 우리 교회는 바로 예언된 그 때에 일어났다.

단8:9-14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 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 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 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것에게 불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 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교회를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였다.

오래된 재림성도들은 누구나 잘 아는 대로 2,300 주야의 끝이 1844년이다. 성소정결 사업은 주께서 하늘성소의 지성소 봉사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하늘성소의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에 대한 것은 이미 대강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설명하지 않는다. 아무튼 주께서 하늘성소의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것은 정결사업이다. 하늘성소의 정결사업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런 저런 간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로 없다. 38) 그러나 하늘성소 정결사업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2,300 주야 끝에는 다니엘 8:9-14에 있는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소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며,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작게 일어나 심히 커진 뿐이 하늘성소를 헐고 제사를 자기가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 짓밟았기 때문에 성소정결에는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마땅하다. 8:13의 질문이 바로 그것을 묻고 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성소와 제사와 진리가 회복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들이다. 39)그러므로 정결사업에는 세상

38) 하늘 성소의 지성소 봉사는 누구를 위한 정결 봉사이기도 하며 왜 그렇습니까?

39) 하늘 성소정결 사업에 어떻게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 정결이 포함됩니까?

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소와 제사와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고 따름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몸 성전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다 (요2:21). 40)예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진리가 회복되어 참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41)계11장은 성전을 척량(尺量)하라는 기별이 있다. 성전을 척량하고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았다. 거기 언약궤가 있는 것이 보인다. 성전을 척량하라는 것은 자로 성전을 재어보라는 것인데, 결국 성소문제를 연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소문제를 연구함으로 하늘성소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12:17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것은 11:19에 언약궤를 본 다음에 보여주신 계시의 장면이다.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 밖에 없다.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

40) 성소 정결 사업을 위하여 무엇이 열렸으며, 결과로 누구를 바르게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41) 성전을 척량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을 나타내며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전문제를 연구하고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이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로 남은 자손이 성립된 것이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소문제를 연구하고 성소정결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작은 뿔의 횡포로 짓밟힌 진리를 찾았으며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가 된 것이다.

사단은 성경을 매우 열심히 연구한다. 그가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한 사실은 그가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마4:6). <sup>42)</sup>그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하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sup>43)</sup>사단이 2,300주야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은 진리를 다른 면으로 혼잡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 시점에 몇 가지 거짓 사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1). 1830년에 몰몬교를 일으킨다.

1827년에 조셉 스미스가 모로나이 천사의 계시로 몰몬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1830년에 세칭 몰몬교를 창설하였다. 조셉 스미스의 출현은 곧 참 선지자가 일어날

<sup>42)</sup> 사단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sup>43)</sup> 사단이 진리를 혼잡하게 하려고 2,300 주야 끝 무렵에 일으킨 사상들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

것을 내다 본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 먼저 일으킴으로 참 선지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공작임을 알 수 있다.

사단은 2,300주야 끝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짐작하고 그 보다 앞서 한 거짓 선지자를 일으키므로 선지자에 대하여 혼란과 불신을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이나 삶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안다. 그가 교조가 된 세칭 몰몬교는 요즘은 수정한 것 같지만, 일부 다처주의였고 요셉 스미스 자신이 20명이 넘는 처를 거느렸다. 또한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소위 몰몬경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성경도 인용하고 있으나, 성경과 몰몬경이 일치하지 않을 때 몰몬경을 취하고 성경을 버린다. 이런 일련의 행적으로 예언의 신의 선물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선수를 치는지 각성해야 할 것이다.

## 2). 1848년 공산당 선언문을 발표하다.

2,300 주야의 끝이 1844년이다. 이날이 이르기 전에 대재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큰 실망을 경험하였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하였고 마침내 하늘 성소정결에 대하여 깨달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해야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성령께서 계시를 통하여 이 일을 친히 인도하실 때에 사단은 공산주의 사상을 일으켰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다. 역사를 물질위주로 해석한다. 소위 유물사관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

이 외쳐지기 시작할 때에 그런 일은 없고 인간이 물질의 발달과 함께 역사가 이어오게 되었다는 사상을 폐뜨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진리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사상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 역사적 시점에서 사단은 그런 일을 일으킨 것이다. 이 선언문을 엥겔스와 공동으로 작성한 칼 맑스는 개신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에 횡행하는 교회의 비리를 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 3). 1859년 종의 기원 출판된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출판은 진화론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튼튼하게 마련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윈 전에도 진화론은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의 출판으로 진화론은 그 이후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석권하게 되었다.

2005년인 지금 겨우 146년이 경과했는데 오늘날 교육과 문화와 정치 경제 전반에 진화론적 사상이 충일하게 되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다. 종의 기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 사상이 신속히 수용된 것뿐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2,300 주야 끝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강력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내다 본 사단이 바로 그런 시점에 이런

사상을 일으켜, 타락할 때부터 내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신에 기름을 부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사상이 온 세상을 미리 점령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가.

#### 4). 1844년 사신 초인 사상의 철학자 니체 출생

니체는 초인사상과 허무주의를 퍼뜨린 사상가이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사람이 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수립하였다. 이것 역시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다.

44)아무튼 2,300 주야가 끝날 무렵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을 매적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이 온 힘을 기울여 마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데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상들이다.

45)이런 강력한 반대 사조들이 사상과 문화를 훔쓸고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고, 예언된 대로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을 일으키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은 전파되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예언된 바로 그때에 조직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도록 세상을 일깨우는 일을 맡은 특별한 교회가 바로 우리교회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

44) 2,300 주야 끝에 일어난 이런 사상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45) 이런 사상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일을 하셨으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립교회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이 시대에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3. 창조주 경배

46) 역사의 종말에는 예배 대결 국면이 될 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친다. 계13장과 14장의 내용은 예배의 대결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13장에 5회나 경배라는 말이 나온다. 4절에 두 번, 8절, 12절, 15절.

47) 이것은 모두 용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배 받아야 할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경배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경배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경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강제성이 동원된다. 군력을 동원하고, 휩박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인다. 자격 없는 것이 경배를 받기위하여서 동원되는 방법들이다.

48) 그러나 14장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온다(7절). 한 번만 나오지만 경배 받으실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이유가 분명하고 자격이 있으신 것이다. 즉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는 마땅히 창조이신 그분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성을 동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만일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이

46) 어떤 양상으로 역사의 종말이 진행될 것입니까?

47) 사단의 세력들이 경배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동원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48)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된다. 49)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은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며,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권하는 말이 9절과 11절에 나온다. 50)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진화론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곧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그 결과는 우상과 함께 영원히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비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51) 사단은 자신이 경배를 받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하고 있다. 바다에서 짐승을 일으키고, 그것의 정체가 탄로 날 즈음에는 땅에서 짐승을 올라오게 하고 그것이 스스로 경배를 도출하기에 역부조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우상을 만들며, 폭력을 동원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몇이든지 죽인다. 죽이고 나면 경배도 끝나는데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한다. 사람은 사망의 공포 앞에 약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52)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계시한다. 창조주를 경배 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이 확립된

49) 창조주를 부인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50)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51)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52) 사람은 어떻게 자기 존재와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까?

다. 이 장의 제목이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이다. 존재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이 되는가?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존재 근원이며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신분이 확인된다. 과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게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4: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느9: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53)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분명한 이유를 계시하고 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존재 원인이요 존재의 보존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그런 사실 자체가 곧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54)그래서 창조주께서는 그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

---

53) 하나님을 경배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4) 죽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의 존재를 회수하신다. 그것이 죽음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55)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외의 누군가가 자기의 신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이다. 56) 부모를 모르면 자기를 모른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뜻이다. 자기를 분명히 아는 것은 곧 자기의 부모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는 자기 부모의 존재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며 부모는 자기 신분과 정체성의 확실한 증명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요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8: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일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그의 아버지가 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부모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

55) 사람은 어떻게 자기 신분을 알 수 있습니까?

56)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와 생명은 부모가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을 효도라 한다.

출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들은 도덕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존재론적인 명령이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근원을 부인하는 태도이다. 그런 자식들에게는 그의 존재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57)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 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며 경배하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존재의 합리적인 이해인 것이다. 효도와 신앙은 대상은 달라도 사상은 같은 것이다. 부모를 알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를 알 때 비로소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4계명과 5계명이다. 4계명은 신앙의 이유를 계시하고 5계명은 효도의 당위성을 가르친다. 이 두 계명은 존재와 생명의 근원과 계승을 계시한다. 레위기에는 이것을 한데 묶어 계시하고 있다.

레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8)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

57) 효도와 신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해 보십시오.

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이라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59) 계14:6-13은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장을 시작하면서 적은 계14:6,7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으로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내용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이 무너진 바벨론이 되는 것이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므로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결국 세 천사의 기별은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기별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서 경배함으로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회복하라는 기별이다.

60)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은, 도덕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복음을 창조론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기별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도덕론에 입각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제 4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사단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자기의 정체가 폭로되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을 알고 미리 거짓 사상들을 일으켜 온 세상을 덮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파하는데 큰 장애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61) 그러나 우리는

---

58)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59) 세 천사의 기별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해 보십시오.

60) 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깨달으라는 기별이며 왜 그렇습니까?

61)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기별의 확실성을 알고 우리교회가 바로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기별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62) 우리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가르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인 것이다. 즉 여호와라 이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교회인 것이다. 6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교회는 창조주를 모르는 교회이며 결국 그들은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한 집단이 된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창조주를 올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의 범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런 뜻으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영원한 구원의 기별, 곧 재창조의 기별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64) 안식일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다닌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겔20:20). 그들이 65)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

62) 우리존재의 정체성이 확립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63)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4) 안식일이 단순히 계명만이 아닌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주장해도 예수께서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마7:21-23) 그들은 창조주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된 자기의 존재를 이미 잊어버린 상태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을 알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존재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66) 우리교회, 특별한 우리교회는 세상에 있는 일반 기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일한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라 이름 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무리들이며,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그분이 주신 제칠 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교회이다. 우리들이야말로 바울처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1:12)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런 교회의 성도답게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살도록 하자.

---

65)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행하였어도 예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까?

66) 우리교회는 이 시대에 확실히 어떤 교회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까?

### 제3장. 개혁의 본질을 깨달은 교회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67) 우리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이다. 내가 장로교에서 우리교회로 옮겼을 때 우리교회는 4대 개혁을 하는 교회라고 들었다. 그것은 종교개혁, 신앙개혁, 생활개혁, 건강개혁이라고 했다. 우리는 말세의 엘리야임을 깨닫고 있다. 68) 엘리야의 사업은 바로 개혁사업이었다. 첫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선지자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을 대항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명(身命)을 다해 증거하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이다. 우리도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를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신명을 다해 증거하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개혁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유일한 교회이다.

#### 1. 하나님의 첫 명령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가면 창조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

---

67) 우리교회가 이루어야 할 개혁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68) 엘리야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의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님의 명령이 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을 만난다. 69)그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이다. 이 말의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말씀 자체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라 사람을 지어놓으신 후에 직접적으로 하신 첫 명령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식물(食物)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첫 사람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것이 먹어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먼저, 여자도 창조하시기 전에 명령한 것이 먹어라 먹지 말라 였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생명과 존재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70)롬14:20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담은 이 일에 실패하였다. 그것이 온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었다. 식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한 사람이 된 것이다.

71)음식물이 이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먹는 것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것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 세포

69) 창조된 사람에게 하신 첫 명령이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0) 음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71) 음식물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석마다 더러운 것들이 차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온 몸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뇌도 더러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며, 아울러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사단이 섞어놓은 오류를 가려내지 못하고 인격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의 희생자가 되었다.

72) 이런 까닭으로 사단은 광야의 이스라엘도 먹는 일로 시험에 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을 아셨다. 73)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갑절의 만나를 주실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려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만나를 거두려 나갔다가 허탕을 쳤다. 그들은 먹는 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드러낸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먹는 것은 거룩한 것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로 대두되었다. 먹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레위기 11장에도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들을 분별해 주신 다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레11:44,45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72)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첫째 도구가 무엇입니까?

73) 거룩하게 하는 것과 음식물의 관련에 대하여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물을 거두는 문제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음식물을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 사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출16:4,5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제 육 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74)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신 것이 확실하지만, 그들은 그것은 박한식물이라고 몰아붙였다(민21:5). 애굽에서 길들여진 그들의 구미를 따라 음식물 먹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음식들이 이 더운 광야에서 건강과 영성에 해로운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들의 강청을 허락하셨다. 결과는 불행으로 나타났다.

시78:29-31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30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31 하나님의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발하자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

---

74)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드러뜨리셨도다.

시106:14,15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75)하나님이 주신대로 먹지 않은 결과는 질병과 사망과 영혼의 파리함이었다.

사단은 태초부터 사람들을 음식 문제로 시험하고 그 일에 사람들은 걸려 넘어졌다. 여기에 재미가 붙은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음식으로 첫 시험을 시작하였다. 물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시험을 물리쳤다.

사람은 예로부터 식욕에 쉽게 사로잡혔다. 역사의 종말에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사로잡고 진리를 깨닫는데 두뇌를 우둔하게 하는 공작을 할 것이며, 성전 된 몸을 더럽히도록 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몸이 되도록 하여 성령을 떠나게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전3:16,17).

## 2. 두 가지 범주의 음식

76)성경을 살피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물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것은 곧 창조한 음식(창1:29,30)과 허락한 음식(창9:3)이다.

77)이런 사실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음으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음식물이 이렇게 두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75) 하나님이 주신대로 먹지 않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76) 성경에 계시된 음식물은 어떤 범주가 있습니까?

77) 누구만이 음식물의 이런 범주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교우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믿어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딤전4:3-5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베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78)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먹어도 된다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자세히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식물(食物)곧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음식물을 음식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음식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먹을거리가 아닌 것이다.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먹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먹고 마시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베릴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돌을 예수께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다. 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선하다. 그러나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

78) 딤전4:3-5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확실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모두 선하다.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선하다고 말씀하셨다(창1:31 구역).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한 것은 음식물을 두고 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음식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먹기에 다 선하다는 말이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야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곧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79)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들의 음식물을 따로 창조하셨다.

창1:29,30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은 창조 언어이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5회 나타난다(7,9,15,24,30). 그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대로 창조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30절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식물(食物)과 동물의 식물(食物)을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먹을거리로 따로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도 역시 그들은 창조된 음식을 먹도록 다시 말씀하셨다(창3:18). 80) 그러나 홍수 후에 하나님은 너무나 격변한 지구의 환경으로 하여 일단 산

---

79) 창조 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음식물 음식물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해보십시오.

80) 언제 허락한 음식이 생겼으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음식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었을 때 영원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의 현세적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음식물로 창조하지 않았던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럴지라도 피는 먹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하셨다.

창세기 9:3에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자체 안에는 음식물로 허락한 동물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모세 때에는 분명한 구별로 창9:3의 범위보다 훨씬 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허락의 범위가 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으로 비록 허락한 음식이라고 건강과 영성에 해롭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허락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하여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필요가 없어질 때나, 허락한 분이 이제는 허락을 취소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 그 허락을 거둘 수 있다.

81)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육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과 영성에 결단코 유익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을 보시고 성령으로 분명히 허락을 철회하시는 기별을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대로 요즘은 음식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이 엄청나지 않는가? 한 때 성인병이라고 불렸던 고혈압,

---

81) 언제가 허락된 음식물의 허락을 거둘 때였습니까?

당뇨, 각종 암 등을 생활습관 병이라고 그 정의를 바꾼 것이 최근의 일이다. 그 생활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주범이 음식물이다. 즉 먹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몸이 올바르지 않은 음식을 먹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런 질병들이 생겼다는 말이다. 광우병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모두 육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창조한 음식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가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과실과 채소와 곡식들을 먹고 살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되돌이키고자 하신다”(음식 322쪽).

82)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창조한 음식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사단은 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성경의 진리를 많이 왜곡시켰다. 주님은 이 왜곡된 진리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과 신체가 다 정결하게 되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런 복된 기별을 주신 것이다. 진정한 개혁이 몸에서부터 이루어질 때에 모든 개혁, 곧 종교개혁, 신앙개혁, 생활개혁, 건강개혁이 바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특별한 교회인 것이다.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를 성경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다. 83) 오늘날 신학은 세상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에 깊이 빠져 있다.

---

82) 왜 하나님은 음식물에 대한 기별을 주셨습니까?

83)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3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설화(說話)라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11장까지도 설화라고 가르친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제 1 장에서 말한 대로 안식일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궤계(詭計)에 빠졌기 때문이다.

84)만일 창세기 1-3장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화라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죄의 발생과 인간의 죽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며, 그렇다면 굳이 구주가 와서 대속해야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진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도 설화가 되며 예수께서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야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게 된다. 이런 사조는 기독교 교리와 신조 자체를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한다.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계시한 성경의 모든 내용이 허위가 되고 마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구원의 종교일 수 없다. 예수가 구주일 수도 없고, 죄의 보편성도 아담과 관련된 것일 수 없다. 그렇다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주가 있어야 할 당위성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예수는 구주라고 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성경의 계시된 대로 옛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절대적 계시를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85)

---

84) 오늘날 신학자들의 견해대로 라면 기독교는 어떤 모순에 빠져 있습니까?

85)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고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히5:14, 요일5:20). 그렇기 위하여 우리 뇌가 맑고 깨끗해야 한다. 그것이 음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 의학도 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가. 현대 의학이나 영양학이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 사실을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요청하신 것이다.

## 2. 음식물과 개혁

86) 이미 위에서 말했지만, 개혁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물을 먹는 일로 시작된다. 왜냐하면 몸은 먹는 것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은 옳은 말이다. 건강할 뿐 아니라 속속들이 깨끗한 몸이라야 한다. 그래야 깨끗한 뇌세포가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뇌를 통하여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 다니엘은 그런 뇌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뇌 속으로 받았다고 말하였다(단7:1,15).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흐릿한 뇌에도 계시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자기가 본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뜻은 더욱 몰랐었다.

이런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했듯이 사단이 예수님께 맨 먼저 시험한 것도 먹는 것이었다. 아담은 넘어갔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

마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

86) 몸과 정신이 깨끗하고 맑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심히 무거운 죄 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함으로 인도하는 과시를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다.”(소망 116쪽).

87)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유혹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88)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89)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소망 117쪽).

87)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며 왜 그랬습니까?

88) 사람의 방종을 부추긴 것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89) 예수님의 첫 승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구속사업의 시작을 식욕을 극복하는데서 시작하셨다. 음식문제는 구속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0)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겸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유년과 소년 시대에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다. 자제력도 이 때 습득해야 한다. 노변(爐邊)과 가정 식탁에서 그 결과가 영원에 미치는 감화가 끼쳐진다.”(소망100쪽)

눅1:15,16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개혁자로서 침례요한은 음식을 가려먹어야 하였다. 요한이 메시야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행사하며 계시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그의 몸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에 대한 기별을 특별히 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을 주도하는 특별한 무리들에게는 절대적인 것

---

90) 하나님은 개혁자들에게 어떤 기별을 우선적으로 주셨습니까?

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랬고, 두 번째 엘리야인 침례요한도 개혁을 행하는 일에 음식물이 선행되어 있다. 말세의 개혁자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교회는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것이다.

마7:9-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것이 음식과 관련되어 교훈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눅11:11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늦은 비 역사에 대한 말도 쓸 것.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 먹는 문제.>

91)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을 성령이라고 가르친다. 성령을 주시는 것을 먹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교회가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진정한 개혁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3:16,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

91) 예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것과 무엇을 관련시켜 가르치셨습니까?

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과 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음식물을 바르게 섭취하여 성전인 몸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몸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에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기대하는 재림성도들은 음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예수께서 수행하시는 성소정결 사업이기 때문이다.

92) “식탁 위에 서투르게 요리한 음식을 올려놓는 것은 죄이다. 왜냐하면 식사 문제가 전 신체 조직의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쾌한 위장을 조성하여 불쾌한 성질을 만들지 않을 방법으로 요리된 음식을 먹을 필요성을 바로 인식하기를 바라신다. 좋은 뺑 한 덩어리에 실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음식 251쪽).

“좋은 뺑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한 덩어리의 좋은 뺑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음식 257쪽).

음식물에는 신앙과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이다. 건강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

92) 좋은 음식물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식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월터 마틴(Walter Martin)은 20세기 후반에 신학계가 인정하는 비교종교 학자였다. 그가 당뇨가 심하여 천연 치료할 곳을 물색하던 중 위마 인스티튜터(Weimar Instituter)를 찾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Dr. 이상구를 만나 성경 대화를 나누었다. 건강과 관련하여 그는 Dr. 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음식물에 그런 복음이 들어 있는 줄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정말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는 종교와 실천적 신앙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닌가! 이 깨달은 것을 생활에 실천할 때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함께 맑아지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깨닫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이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개혁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의 전(殿)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개혁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93)“목회 사업의 중요한 일부는 건강 개혁을 성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사업의 한 부분이요 한 덩어리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역설하여야 할 것이다.”(음식 74쪽).

“동물성 기름 없이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천연 그대로 준비된 곡식과 과일은 승천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식탁을 위한 식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음식

93) 목사들은 건강 개혁을 실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14쪽).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은 아닙니다. 충족되어야 할 신체의 요구가 있으나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식욕에 지배당할 필요가 있는가? 94)하늘 천사들의 사회에 영접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세련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화판으로 즐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는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모든 면에 절제를 실천할 것이라는 것 이었다.”(음식 381쪽).

95)“보다 더 큰 개혁이 그리스도의 곧 나타나심을 기다리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져야 한다. 건강 개혁은 우리 백성들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식하는 위험에 대하여 일깨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즉 아직도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개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음식 381쪽).

고전8: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 3. 성소정결

94)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성도들은 결국 어떤 음식을 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까?

95) 음식물 개혁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2,300주야 끝에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정결 봉사를 하시는 것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 정결이 포함된 것임을 이미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96)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 곧 심판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은 작은 뿐이 더럽히고 짓밟고 탈취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포함된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벼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불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 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단 8:11-13)라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 1). 성소 파괴=성소 회복
- 2). 제사 탈취=제사 회복
- 3). 진리 棄忘=진리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844년에 이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재림운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우리교회가 조직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소정결 사업에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97)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 역사의 종말에 순수한 성경적 진리교회로 형성된 것이 우리교회이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도 정결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

96) 성소정결 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97) 우리 몸 성전이 정결해져야 할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 겠는가?

98) 1863년 5월 21에 대총회가 조직되고 2주일 후인 6월 5일에 미시간주 오세고(Otsego)에서 건강 기별이 주어졌다. 타이밍을 보라, 이제 성소정결로 회복된 기별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몸인 참교회가 조직되자 그 몸 성소가 정결하여져서 성소정결 기별을 정결하게 외치도록 하신 것이다. 건강 기별은 건강을 위하여서만 준 것이 아니고 성소정결 차원에서 준 것임을 우리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고전3:16-19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전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개혁을 위한 성령의 특별한 기별에 순복하지 않고 교회정결은 요원하다. 우리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의 진리 교회가 정결하게 될 때 완성될 것이다. 지도자들과 온 교우들이 이 개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즐겨 수행하여 정말 4대 개혁을 완성시키는 역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98) 건강 기별이 주어진 때는 언제이며, 왜 그때 주어졌습니까?

## 제4장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안 교회

살후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부분의 일반 개신교계는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믿고 있다. 99)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후에 될 일”은 곧 말세가 될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는 적그리스도는 미래 곧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것으로 이해한다. 계시록 예언에 미래적 해석법을 도입한 것은 로마 카톨릭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카톨릭을 음녀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여 공격을 가하자 이런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반격을 가할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회의 리베라 신부에게 이런 해석을 연구하도록 해서 이룩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개혁자의 후예인 개신교가 이 반 개혁

99) 무슨 말씀을 근거로 계시록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며 누가 그렇게 지도 하였습니까?

적 해석법을 합리적으로 도입하여 계시록해석을 주로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개혁자들이 교황권을 공격하는 일은 잘못 된 해석 때문이라고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바로 7년 대환난 때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세대주의 해석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100)이 사람들은 다니엘 9장의 70 이례 중에서 마지막 한 이례를 7년 대환난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 이례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한 이례를 7년으로 그 이례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눈다. 거기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적용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분리하여 해석한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례는 7년으로 1일 1년 원칙을 적용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문자대로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제쳐 두고, 이 기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자기편에 속하게 하기위하여 준동하는 때라고 보면 그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휩박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70 이례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전 3년 반 동안은 회유정책을 쓴다. 그래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후 3년 반에는 강압정책으로 큰 휩박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전 기간을 합하여 7년 대환난이라고 한다. 101)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 해

---

100) 무엇에 근거하여 7년 대환난을 주장하며 누가 그런 해석을 도입했습니까?

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70 이례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69이례가 성취된 후에 역사의 종말 재림 직전에 마지막 한 이례의 때가 온다는 발상부터가 성경 예언의 문맥을 오해한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기간이라는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연속적인 기간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에 “금지”가 “샤바트” 곧 안식하게 한다는 말로 이해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의 의미를 실제로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져서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sup>101)</sup> 그런데 많은 개신교회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난 기간에 출현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예언의 때에 나타나서 철저히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결코 스스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나타날 것이며,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교회만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다. 그 특별한 뜻을 넉넉히 감당해야 한다.

## 1. 성소정결 곧 재림 전 심판

단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

---

101) 7년 대환난 해석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2) 오늘날 개신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익숙한 말씀이다. 이것은 개혁의 기별이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결과로 재림교회가 성립되었다. 재림교회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로 세워진 교회이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진정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103) 2,300 주야 끝에 정결해지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언 상 2,300 주야는 실제 역사의 연대로는 2,300년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점을 알면 그 끝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도 한참 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줄 알게 된다. 히브리서는 하늘에 예수께서 봉사하는 성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히9:11-24). 성소정결 하는 봉사를 위하여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하늘성소정결을 위하여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104)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려면 이 세상에 계시면 안 된다.

히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성소봉사를 위하여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행7:55,56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103) 왜 2,300주야 끝에 정결하여지는 성소는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까?

104) 예수님이 제사장 봉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105)이 사건은 70이레가 끝날 때 있었던 사건이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온 인류를 위하여 성소봉사 하실 때가 된 것이다. 70 이레 기간은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기간이었다. 다니엘 9:24에서 가브리엘은 “네 민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이레를 정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다니엘의 민족 곧 유대인을 위한 기간인 것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이레의 절반에 십자가를 지셔서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사람들을 쉬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머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유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동안 유대인을 위하여 하늘에서 봉사하셨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자 사울을 이방을 위한 사도 바울로 부르시고 이방에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봉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예언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다. 바로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봉사를 시작하실 때가 70 이레의 끝이다. 106)예수님의 하늘성소 봉사를 그림자인 지상성소 봉사에 비추어 이해할 때 70 이레의 끝은 예수께서 하늘성소 봉사를 시작하실 때를 지적하고 2,300 주야의 끝은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할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107)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봉사는 그것이 성소봉사이든지

---

105) 예언상으로 70 이레는 누구를 위한 기간입니까? 그 기간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6) 2,300 주야에서 나누어진 두 기간의 끝은 각각 어떤 일의 시작을 가르칩니다?

107) 예수님의 하늘성소 봉사는 무엇을 위한 봉사이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성소봉사이든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계1: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총 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소봉사하시는 것이 교회를 위한 봉사임을 분명히 계시한다. 일곱 촛대는 성소에 있는 기구이다.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를 표상하는 것임을 이 계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 일곱 교회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기간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sup>108)</sup>그리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성소봉사를 통하여 형성되는 일곱 번째 교회이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이것을 지적한다. 이 말은 라오스(λαός)와 디케(δική)의 합성어인데, 디케는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재판장에게 무죄선고를 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라오디게아의 뜻이다. 즉 심판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백성이라는 말이다.

계3:14,15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옵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옵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sup>109)</sup>이 교회에 기별을 주신 분은 “아멘,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다. 아멘은 진리, 참된 증인은 예수의 증거, 창조의 근본은 참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결국 지성소 봉사

---

<sup>108)</sup>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림 전 심판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sup>109)</sup>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분의 칭호는 어떤 뜻을 나타냅니까?

도 교회를 위한 봉사임을 알 수 있다. 이 봉사를 통하여 성소가 정결하여지는데, 정결하여지는 성소는 세 가지이다.

110) 우리가 참 성소를 말할 때 주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뜻한다. 그러나 성경을 살피면 참 성소가 세 가지인 것을 알게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 가지 참 성소

- 1). 하늘성소(히8:5)
- 2). 예수의 몸(요2:21)  
    예수의 몸인 교회(엡1:22,23)
- 3). 교회 구성원인 성도(고전3:16, 6:19)

성소정결 사업인 하늘 지성소 봉사는 재림 전 심판인데 이 심판으로 이 세 성소가 동시에 정결하여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결을 위하여 이런 일을 저지를 당사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성소정결의 실제적인 사항은 심판이다. 심판에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7장에 계시되어 있다.

단7:9-11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

---

<sup>110)</sup> 성경에 계시된 참 성소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11)며 놓인 책에 기록된 내용이 원고의 역할을 하고, 11절에 기록된 작은 뿔이 피고인 것이 확실하다. 성소정결로 이 뿔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것이 저지른 세 가지 파괴되고 더럽혀진 것이 회복됨으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 교회 곧 정결하게 된 교회가 성립되면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정결하여진 교회가 작은 뿔의 권세 곧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외치는 당위성이 확립되게 되는 것이다.

세 가지 파괴되고 더럽혀진 것은 이 책 제 2 장에서 말한 것들인데, 그것은 다니엘 8:9-13에 예언된 내용이다.

단8:9-13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것에게 불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12)여기 지적한 작다가 심히 커진 뿔의 행패를 정리하면,

---

111) 조사심판인 이 심판으로 누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112) 작은 뿔의 행패를 요약해서 말해 보십시오.

- 1). 하늘 성소를 헐었다.
- 2). 제사를 자기가 차지하였다.
- 3). 진리를 땅에 던져 짓밟았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데는 이 세 가지 사실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이것들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셨다.

113)<sup>1)</sup>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 재림 운동을 일으키셨다. 그것은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대로 천사의 손에 꿔 놓인 작은 책을 먹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 책이 다니엘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연구한 결과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언된 이 기간 후에는 남은 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꿀 같이 달았지만 결과는 아주 쓴 경험이 되었다. 성소정결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성소정결 문제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정결봉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작은 뿔이 헐었던 성소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성소문제를 깨닫게 되자 그 안에 언약궤를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은 아직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속죄가 신부들에게 하는 고해성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속죄봉사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하게 되어 제사를 작은 뿔이 차지한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잊어버린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땅에 던져서 짓밟힌 진리들이 회복되게 되었다. 모든 비 성경적인 교리들을 제거하고 오직 성경

---

<sup>1)</sup>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성소정결 결과가 세상에 드러났습니까?

적 교리들이 정립된 것이다. 성소정결 봉사를 통하여 밝혀진 이 확실한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면 남은 자손에 속하게 되고 거절하면 바벨론에 남게 된다. 이것도 심판의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밝혀진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하는 것이 심판에 임하는 상태인 것이다. 우리교회는 바로 이 밝혀진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114) 성소정결 조사심판에는 몇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껏 자주 들어온 대로 예수께서 생명책을 살펴서 자격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도말하는 것이다(출 32:32, 시 69:28, 계 3:5).

둘째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도말 처리하시는 것이다(레 16:30, 사 44:22, 렘 31:34).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그 죄가 기억에 남아 있다. 사람 사이에서 좋지 못한 인상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이 거가 온 것을 볼 때, 그 좋지 못한 기억이 살아난다면 그 자리가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재림 전 심판에서 이런 모든 죄와 죄에 속한 기억들을 말끔히 지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사람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깨끗이 도말해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부활의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모든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정말 심판의 기별은 복음

---

114) 성소정결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진리를 밝혀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첫째 사실에만 익숙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말씀(벧전4:15)은 이 땅에 있으 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처하는 존재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조사심판의 상황이 원만하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 셋째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종말론적 교회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 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 저).

예수께서 직접 어떤 선지자를 언급하여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뿐이다.

교단적으로 이 일을 하는 교회는 우리교회뿐이다.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종말론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교회이다.

115)<sup>115)</sup>성경이 종말 지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종 말론이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아니다. 성경은 종말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종말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헛것이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셨다.

사46: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

<sup>115)</sup> 왜 종말론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을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낼 것도 예언적으로 포함된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계시된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종말론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16) 이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2,500년쯤 후에 기록하게 한 말씀이다. 그것은 창조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2,300년이나 지난 후라는 말이다. 그때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 기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 1). 창조 정보

---

116) 창세기 1:1이 종말 지향적인 뜻을 말해 보십시오.

2). 구원의 의지(사람을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것)

3). 신천지 창조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해할 때 창세기 1:1부터 성경은 종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말론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다.

117) 종말은 재림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롬8:24,25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118) 영혼불멸론과 사후 즉시 천국행을 가르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종말론이 절실하게 필요 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소망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목숨이 멎는 즉시 천국을 가는데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물론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속히 죽어서 영혼이 천국가고 싶은 소망이 있겠으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소망을 기다리는 일은 사치스러운 것일 뿐이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종말론이 왜 교회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우리교회는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종말을 알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이다.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바로

117) 종말은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이루어집니까?

118) 종말론이 바르지 않으면 왜 재림의 소망이 무의미합니까?

2,300주야 문제를 깨닫고 성소정결로 드러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종말론을 확실히 깨달은 결과이다.

119)마24:15은 살후2:3,4에서 확대 계시된다. 그것을 분석하면 이 구절과 다니엘의 예언이 종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은 바벨론이 무엇이지 아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바로 바벨론의 실상을 별 상징적 언어 없이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살후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승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가) 불법의 사람= 단7:25 법을 변개코자 함.

나) 멸망의 아들= 마24:15 멸망의 가증한 것

단8:13 망하게 하는 죄악

다) 대적하는 자= 단7:25 지극히 높으신 자 대적

단8:11 군대의 주재를 대적

라) 성전에 앉아= 마24:15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사람들을 가장 혼란하게 하는 것이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것이다. 거기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불법, 곧 하나님의 법을 변개(고치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볼 수 없게 처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

119) 살후2:3,4절을 설명해 보십시오.

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이다.

120)그러므로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표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언행을 보아 알 수 있다.

1).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의 계시와 다르게 변경하였다면 그가 아무리 성전에 앉아서 거룩한 척 해도 적그리스도이다.

2). 그가 죄사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적그리스도이다.

3). 그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적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장인 것이다.

121)이런 존재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이미 나타나 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온 세상은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며 세상에 있는 인간 하나님처럼 우러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멸망의 미운 것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정말 우리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은 특별한 교회이며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예언을 바르게 깨닫고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한 바른 기별이며,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깨달은 성경적 교회인 것이다.

### 3. 바벨론

바벨론은 고대 제국이다. 니므롯이 건설한 후 역사의 현장에 몇 번이나 등장하지만 소위 신 바벨론 제국이 망한(605-538

120)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121) 종말론과 관련하여서도 우리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BC) 후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역사적인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으나 바벨론은 계시록에 등장하여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고 있는 기이한 존재이다.

122) 성소정결 사업이 없었으면 이런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조사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역사의 종말에 있을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앞 장에서 말한 대로 조사심판 곧 재림 전 심판의 장면을 보여준 다니엘 7:9-12에서 피고가 작은 뿐이며 이 것이 곧 계시록에 등장한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할 수 없다.

성경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배경을 계시해놓았다.  
창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23) 이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은 언어의 혼잡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혼잡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후2:17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초대교회 시대에 아직도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인데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교회를 바벨론을 만

---

122) 어떤 일을 통하여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23) 어떤 경우를 사상적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들고 있었던 것이다.

124) 바벨론은 교회의 행정자나, 지도자들의 성품적 행정적 허물이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성경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교리로 주장해야 영적 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일을 성소정결 사업으로 폭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게 보이는 존재와 조직이 놀랍게도 바벨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임을 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밝히되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교회가 바벨론 방법을 급속히 따른다. 방법이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와 바벨론은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 방법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도입하면서 그 방법에 담긴 사상도 묻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다. 이 시대에 홀로 처할 백성인데 열방 중 하나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23:9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25)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음미해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선택된 백성

124) 어떤 경우를 영적 바벨론이라고 합니까?

125)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이다.

레18:3,4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26)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달(暢達)해야 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인근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익숙해진 생활습관과 받아들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열방을 닮기를 바랐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 상태가 전혀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몸은 애굽 밖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들의 정신은 애굽에 안주하고 있었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는 근본이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열방 같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특히 사물엘 시대에 그 요구가 절정에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삼상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삼상8:20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

<sup>126)</sup>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향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통치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삼상8:6,7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왕국이 건설되었으나 사울은 실패하였고 다윗 왕조가 이어졌지만 그 왕국의 역사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으로서(행 13:22)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메시야 왕국을 표상하는 왕으로서의 예표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그 왕국은 결국 열방의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열방 중에 하나가 되어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였으나 마침내 로마에 속국이 되고 메시야가 왔을 때에 메시야를 버리고 가이사를 왕으로 받아들이므로 영원히 이방이 되어버린 것이다(요19:15, 행4:25-28).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후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을 받았으나 역시 세상 신이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받아 타라고 개혁의 부침을 거듭하다가 2,300 주야 끝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을 일으키셨으며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세우신 더 이상 다른 무리가 일어날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무리들도 요즘 열방을 닮고 싶은 열망에 빠져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그 정신적 사상적 세계는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제도적 바벨론에서 나왔으나 아직도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방법이 바벨론을 사모하고 닮으려고 한다면 옛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sup>127)</sup> 우리는 애굽의 풍속 곧 애굽의 문화도 가나안의 문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문화를 창달하여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진 특별한 교회이다. 스스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렘15:19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열방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의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

<sup>127)</sup>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문화로 세상을 압도해야 합니까?

## 제5장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교회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  
음을 가셨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  
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  
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  
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  
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  
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  
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  
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  
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28)우리교회는 바벨론의 정체를 깨달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들에게 전할 기별이 있다.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너진 바벨론이 된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전해야 할 세 천사의 기별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전할 기별이 분명해진다.

### 1. 세 천사의 기별

129) 세 천사의 기별은 결국 한 기별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인데 무너졌다.

**셋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면 밤낮 쉬지 못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인데, 이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고 밤낮 쉬지 못하게 된다는 기별이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다.

130) 성경에 계시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눅2:10,11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8) 우리교회가 바벨론에 전할 기별은 무엇이며 왜 전할 수 있습니까?

129) 세 천사의 기별을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며, 종합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30)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양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다. 누가복음 2:10의 “좋은 소식”이 바로 유양겔리온이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의 바로 복음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더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롬1:1-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하신 것이라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31)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마1:21). 그분은 부활하시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롬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

131) 구원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132)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요, 그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며 재창조되는 것이다.

구원이 부활과 얹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 십자가와만 얹혀 있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133)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부활하심으로 믿을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거짓이 된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

고전 15:13-19 만일 죽은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134)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132) 십자가와 부활은 각각 어떤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133)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34) 부활이 없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전파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근거임을 확신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사망에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 2. 영원한 복음

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이다.

골1:15-18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35)콜로새 1장15절부터는 예수께서 창조주와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예수께서 피조물의 장자인 것처

---

<sup>135)</sup> 골1:1-18은 창조와 부활을 어떻게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럼 부활에도 장자라라고 계시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활도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활을 창조의 시작으로 계시하는 것이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라는 말씀이다. 136)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37)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도덕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조론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죄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 상태로 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도덕적으로 저지른 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대로 있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죽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상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 상태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존재를 상실했으므로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죽지 않고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시각으로 보라는 기별이라는 말이다.

138) 성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아 있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죽고 없어진 상태로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136)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37)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138)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것으로 말씀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표현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어서 잃어버린 존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죽음을 처리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실상을 드러내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다.

요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8:21,22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139)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구원의 복음에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죄는 사망이며 그 존재를 상실한 것이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던 존재를 회복하여 다시 있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임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탕자 비유에서 이 사실을 극명하게 지적하셨다.

눅15: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

139)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때 죄와 구원을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습니까?

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140)탕자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이상의 상태에 처한 것을 지적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 곧 없어졌던 자이며, 죽었던 자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 찾아진 자 곧 있는 자가 되었으며 산자가 된 것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죽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일체 묻지 않으신다. 죽은 자에게는 생활이 없다. 다만 썩고 있으며 썩는 냄새를 풍기는 것뿐이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었을 때의 상태를 탓할 수 없고 탓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제 살아난 사실이 중요하고 기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 있다면 그에게는 살아 있는 자의 생활이 있게 된다.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롬6:4).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존재하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생명이시오 존재 자체이신 주님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것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말씀과 설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창조, 곧 존재와 재창조 곧 부활의 시각으로 조명하라는 말씀이다. 창조 시각으로 볼 때 복음은 창조와 부활로 집약되는데 이것은 곧 존재와 생명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라는 기별이다. 윤리와 도덕적 시각으로 이해한 복음을 창조의 시각으로 이해하라는 기별이다. 영원한 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복음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복음이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것이다. 이것을 성소정결 곧

---

140) 텔자 비유에서 죄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조사심판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다.

141) 2,000년 가까운 교회 역사가 구원의 복음을 도덕적 죄에서 구원하는 시각으로 전해온 것이다.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도덕적 죄에서도 구원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이 된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서의 죄들일 뿐이다. 생명이 있다가 생명을 잃은 것은 썩게 되어 있다. 142)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곧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된 것이다(롬 8:21).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자비의 허락으로 육체의 생명만 가지게 된 자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엡 4:22). 이런 현상이 도덕적 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면 사망의 성질인 썩는 구습은 생명의 열매들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음을 다만 도덕적 죄에서 속죄되는 것으로 가르쳐오기 때문에, 실제로 있어서는 복음도 도덕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라 복음도 도덕도 다 없어져버린 것 같아 보이지 않는가? 그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배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지어도 용서의 길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를 만들어놓았다는 말이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

---

141) 도덕적 죄들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42) 사람들에게 썩는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는 것이다. 이제는 죽은 행실(히6:1, 9:14), 곧 썩는 일을 그친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다. 143)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도덕적 죄들을 용서하는 복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속여서 이끌어온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깊이 숨겨버리고 교회가 안식일의 존재론적 속죄론적 창조론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드디어 성소정결 봉사로 이것이 폭로되었다.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창조론적인 시각으로 복음을 깨닫고 전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복음의 창조론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 3. 영원한 복음과 믿음의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목사 중언 91쪽).

예언의 신의 중언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말만 있고 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렇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다 읽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왜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지 얼른 납득이 안된다.

---

143)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떤 계교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분은 화잇 자매가 이 말씀을 하던 당시 와그너, 존스 등에 의하여 전파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대답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는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이 성경 자체에서도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의 수용 여부의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144)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 시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다.

수고는 창세기 3:17-19에서 비로소 생겼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 말을 바꾸면 종신하면 수고를 그친다는 말이다. 그

---

144) 수고는 어떻게 그칠 수 있습니까?

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고가 그치고 쉼이 있다. 주께서 이것을 친히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11:28,29).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게 되고 그때에 주님의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145) 하나님의 의는 창조와 재창조, 곧 부활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하지 않으면 창조주가 드러나지 않는다.

롬1:17-20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평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소식이다.

---

145)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46)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창조로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며 영생이 있을 수 없다.

147)로마서 1장 18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곧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진노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먹이는 자에 대하여 계시한다. 그것은 그 바벨론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148)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성경의 해석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노하셔서 죄인들을 형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의 설명은 그렇지 않다.

애3:42,43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을 스스로 가리우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는 궁휼이 임할 수 없고 살육이 일어나는 것이다.

호9:12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

146)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까?

147)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을 어떤 현상을 뜻합니까?

148)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화가 임한다고 가르친다.  
스스로를 숨기시는 것이 진노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다.

렘2: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  
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 된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선택  
한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두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재앙  
이요 고통인 것이다. 로마서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롬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  
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  
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계속하다가 때가  
다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력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재창조주로  
믿지 못하도록 교묘한 술책으로 오랜 세월을 관리해 왔다. 그  
러나 이제 때가 되자 영원한 복음의 실상을 드러내신 것이다.

<sup>149)</sup>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주 곧 재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이다.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  
곧 창조와 재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150)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

<sup>149)</sup> 하나님은 무엇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까?

과 얹혀 있다.

롬4:23-25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10:6-10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들은 의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하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롬4:17-19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sup>150)</sup> 로마서가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51)위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창15:6), 아브라함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여기서 밝히고 있다. 그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주로 연구한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둔하여서 그것을 일찍 찾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것을 밝혀서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152)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도덕적 죄의 용서와 성품의 전가에서 찾고 있다.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결코 더 이상 썩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은 멈추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 153)“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

151)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152)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떤 의미로 찾고 있습니까?

153) 요일3:9의 말씀은 어떤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까?

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요일3:9)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다시는 할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행위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

154)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죽게 두시고 나흘 후에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아담과 그의 후손의 상태를 표상한다.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계산한대로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가 창세후 한 4천년쯤 되는 때이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신 후에 베다니로 가셨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것이다. 나흘을,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상징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죽은 지 4천년쯤 된 것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사로의 무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23:4), 심히 마른 해골들이 널려있는 해골 골짜기(겔37:1-10)로 표상된 이지구를 표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썩을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수의로 동여진채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다. 이제 나사로는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썩으

---

154) 나사로를 살린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까?

면서 썩는 냄새를 풍기는 대신에 생명으로 활력 있게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실상이다. 어떻게 계속 썩겠는가? 어떻게 썩는 냄새를 풍기겠는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주이시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재창조의 주님이신 것이다. 복음은 창조와 재창조의 기별이다. 창조는 태초에 있었고, 재창조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영원한 사실이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심판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다. 얼마나 복된 기별인가!

155) 창조와 재창조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증거한다. 안식일 계명에는 믿음의 의가 들어있다.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롬4:4,5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삶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나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

---

155) 안식일은 어떤 사건의 중심에 위치합니까?

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56)이 두 말씀에는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아니 할지라도

은혜는 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값진 것을 주는 것이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안식일은 은혜의 보증이요, 창조력의 기념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믿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안식일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157)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거스틴의 정의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어거스틴은 죄를 아담으로부터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유전 받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정의 이후에 복음을 도덕적 관점으로 설명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이 1800년 가까이 교회를 지배하였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늘성소의 지성소봉사 곧 성소정결봉사를 통하여 땅에 떨어져 짓밟힌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영원한 복음이 바로 도덕적 관점에서 가르쳐온 복음을 창조적 존재론

156) 안식일 계명에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 있습니까?

157) 대부분의 학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적 관점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창조와 존재, 재창조의 핵심에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158)안식일은 단순히 십계명 중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곧 창조와 재창조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표가 되는 것이다(겔20:20).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을 때 계시록 18장의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능력의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59)성소정결 사업을 통하여 안식일을 깨닫게 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한 것이다. 예수 안에서 창조와 재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의 생리가 된다.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된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지키는 것이다. 그 생명의 생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괴롭고 병이 나게 되어 있다.

우리교회는 이런 교회이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른 진리를 가진 아주 특별한 교회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 외국의 학자들이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적어놓은 글들 번역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158) 안식일이 표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159)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상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까? 그들은 왜 계명을 지킵니까?

대신에 이렇게 명백한 너무나 중대한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할 것이다.

## 제6장 예언된 선지자가 있는 교회

고전1: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160)○]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교회에 주신 어떤 은사는 어떤 역사적 시점에 이르러 아주 끊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끝 날까지 교회에 있을 것인데 그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도 포함된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 교회는 예언의 신의 은사를 가졌다. 이것도 우리교회가 하나님 이 특별히 세우신 특별한 교회라는 증거이다.

### 1. 예수의 증거

계시록 12장에는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 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61)그 여자의 남은 자손 “των λοιπῶν τοῦ σπερματοῦ αὐτῆς”(تون 로이폰 투 스페르마토스 아우테스)은 “그 여자의 후손의

160) 교회에 주신 은사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161)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후손”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씨”이다. 즉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손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지 않게 알고 있다. 그 것은 십계명이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계19:10에서 그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다. 구역(舊譯)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하였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할만한 일이다.

계19:10 내가 그 빛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 곧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엘렌 화잇을 통하여 주신 증언들이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고 그 증언을 받아 기록하여 전한 엘렌 화잇을 선지자로 믿는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 이 말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많은 경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거부감을 표현한다.

162)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어떤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가? 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라는 말씀이 처음부터 등장한다.

---

162)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의 증거는 화잇을 통하여 주신 기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예수의 증거라고 하였다. 이것은 결코 엘렌 화잇의 글일 수 없다. 요한이 화잇의 글을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은 계시록 자체를 예수의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본 것이기 때문이다.

계1: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자체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요한이 계시록의 내용을 본 것은 유배된 다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것을 뜻하는 말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계6:9 다섯째 인을 폐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의 “저희의 가진 증거”는 계시록이 아니다. 물론 화잇의 글일 수도 없다. 이것은 여섯째 인을 폐기 전 곧 다섯째 인을 폐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계시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 시기는 화잇이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다.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에서 남은 자손이 가진 예수의 증거를 만나게 된다. 계시록 앞부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이 바뀐다.

계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는 “예수의 증거” 대신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 위에 기록된 두 번이 전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계20:4에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계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바로 위의 말씀에 있는 “예수의 증거”도 화잇의 글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증거로 인하여 순교당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잇의 글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성립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호소하는 죽은 자들이 이 증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일괄적으로 예언의 신이라는 화잇의 글들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의 증거라는 말의 합리적인 대

답을 찾아보는 것은 합당한 노력이 아니겠는가?

## 2. 초대교회의 경전

163)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경전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다.

요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글판 신약성경에 성경이라고 번역된 것이 46회쯤 된다. 그중에는 대명사를 성경이라는 본명사로 번역한 것도 상당수이다. 요5:39에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에만 본명사이고 두 번은 대명사이다.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한 것은 모두 구약성경을 지칭하는 것이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많은 신약성경에 포함된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교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구약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교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을까? 교회가 그것을 구약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이러한 초기 교회의 사정과 관련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부활과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

<sup>163)</sup>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무엇을 뜻했습니까?

었다. 그런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무엇이라 할 것이며, 구약성경과 어떻게 구분하며 어떻게 동등시할 것인지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164)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 섬에 있게 되었다고 썼는데, 아마도 이때의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된다.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교훈과 행적을 기록할 때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구약성경과 동등한 것인가? 요한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

요5:46,47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므로 후세에 당신의 교훈이 구약성경과 그 권위가 동등하고 오히려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을 ‘예수의 증거’는 신약성경을 뜻하는 당시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구약성경과 지금 신약성경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사도들의 글들을 당시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불러서 구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

164)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것과 사도들의 글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165)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구약성경을 뜻하는 줄 온 세상이 다 안다. 이렇게 성경이 확정된 역사적 시기에 다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지적한다. 예언의 신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한 모든 성경 말씀도 예언의 신의 증거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히 주실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예언의 신의 말씀인 예수의 증거라고 불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엘렌 화잇은 자신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신 분이 예언의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기 원하는 총명한 젊은 남녀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시일 내에 영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여러 선교지를 위한 많은 훌륭한 일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의 신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자서전 373쪽)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은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 일을 해 가면서, 그들은 그들이 내딛은 발걸음이 현명하였음을 더욱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1904년 2월 25일자 리뷰지 편집자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달이 갈수록 우리는 본부를 워싱턴으로 이전해야 했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었

---

165) 이 시대에 예수의 증거를 신약성경이라고 보기보다는 화잇을 통해주신 증언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또한 이 기별을 위해 광범위한 감화를 끼칠 진리의 기념물을 이곳에 설립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언의 신을 통해 주어진 지시를 통해서 볼 때, 출판, 교육, 의료 사업 등 각 분야의 기관 사업은 표본적으로 이곳에 설립되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의 활동을 추진하여, 이 나라의 수도와 교단 사업 본부에 한 선교 운동으로서의 이 기별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해야 한다.”(자서전 39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경고와 견책에 대한 증언을 그대들에게 보낼 때에 그대들 중 다수가 그 증언은 단순히 화잇자매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언의 신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알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에게 계시로 보여졌다.”(1증언 27쪽)

<sup>166)</sup>이런 말씀들은 예언의 신이 성령이심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계시록 10장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불릴 또 하나의 예수의 증거를 주실 것임을 계시한 것이 계12:17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다.

### 3.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sup>166)</sup> 예언의 신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예수의 증거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면, 위의 말씀은 계10장 사건 이후의 어느 역사적 시점에 있게 될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짐으로 남은 자손임이 확인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시기 어느 시점, 곧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며 자게 되는 역사적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신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증언을 주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 주신 예수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167)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마25:1-4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은 재림이 가까울 때의 지상 교회의 사정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교회는 등과 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무리는 등 외에 기름이 담긴 그릇을 더 가지고 있다.

등은 성경이라고 해석한다.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에는 불이 붙어 밝히고 있다.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기름

---

<sup>167)</sup> 예수의 증거를 주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등에 들어 있는 기름만으로는 불을 계속 밝힐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담아서 등에 있는 기름이 다 타면 등에 부어야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등 외의 다른 그릇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의 기별을 담은 글들이라고 볼 수 있다.

168)<sup>168)</sup>20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성경은 사람의 해석과 문화의 영향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해석의 원칙을 떠나서 신학이 인간학이 되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진리를 땅에 던져 짓밟은 것이다. 재림이 가까울 때에 기름을 담을 다른 그릇, 곧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비유로 이 사실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임하셔서 작은 뿐이 땅에 던져 짓밟은 진리를 회복하여 말씀의 등불이 밝히 타오르도록 하신 것이다.

#### 4. 예언과 역사의 증거

169)<sup>169)</sup>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진리 교회에 회복될 것에 대하여서는 예언과 역사의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세워질 것에 대하여 분명한 예언을 주셨다.

계10: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2에 기록된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

<sup>168)</sup> 왜 예언의 신께서 특별한 증언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sup>169)</sup> 마지막 때 진리 교회에 일어날 선지자는 어떤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쓴 경험이 있는 후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다시 예언할 종,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것이 예언의 증거이다.

170) 그리고 과연 구약성경에서 봉하여진 작은 책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깨닫는 것으로 작은 책을 먹는 경험을 했으며 그 결과 2,300 주야의 끝이 1844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입에 얼마나 달았겠는가!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는가! 그것은 곧 배에는 쓴 경험을 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이다. 171) 그런 후에 주님은 다시 예언할 종을 일으키셨다. 바로 예언된 그 시점에 예언된 그 사건이 성취된 후에 엘렌 화잇을 예언의 신께서 주시는 증언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화잇 여사는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그 시점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예언과 그 성취의 역사적 사건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증거 곧 예언과 역사적 성취의 증거를 통하여 그때 성령으로 주신 기별이 바로 예언의 신의 기별 곧 예수의 증거임을 확신 할 수 있는 것이다.

172) 계시록 11장은 다시 예언할 내용에 대하여 가르친다. 성전을 척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다. 곧 성소 문제를 깨

---

170) 선지자를 있게 될 것을 증거하는 예언과 역사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171) 예언과 역사적 성취가 있은 후에 누가 예언의 신의 증언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172) 다시 예언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라고 계시되었습니까?

달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173) 성소문제를 깨닫게 되자 재림전 심판에 대한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성소정결 기별이며, 주님의 성소정결 봉사를 통하여 세 천사의 기별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기별의 핵심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과연 배에는 쓴 경험의 있을 후에 성소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그전에는 하늘 성소에 대한 진리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어떤 분은 재림교회가 교회사에 공헌한 것이 있다면 성소문제를 교리적 차원으로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성소문제에 대하여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하늘 성소와 그 봉사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기별을 힘써 전하고 있다. 과연 예언된 대로 일이 이루어졌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교회이다. 우리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며 진리 교회이다. 홀로 처할 백성이요 열방 중에 하나일 수 없다. 우리의 이런 위치와 신분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런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다. 예언의 선물은 다 졸며 자는 종말적 시기에 성경의 계시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종말론을 확립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이 바벨론인지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기별을 증거하도록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이 선물에 의하여 우리는 역대의 무너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수보하며 세 천사의 기별을 힘 있게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회이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바르

---

173) 다시 예언해야 할 진리를 깨달은 결과는 무엇과 연결되었습니까?

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위탁된 기별을 올바르게 믿고 실천  
하며 잘 증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제7장 대쟁투와 재림교회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와 죄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가르쳐주셨다. 위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런데 그 싸움을 주도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시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선언 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의 역사이다. 174)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대쟁투라고 표현한다. 엘렌 화잇의 대쟁투 총서는 뱀과 여자의 후손의 쟁투를 영감과 계시의 안목을 잘 표현한 저서이다. 우리교회는 이 대쟁투 역사의 끝 부분에 와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 대쟁투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교회이다.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올바르게 참여해야 한다. 그렇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길을 잘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 1. 교육과 사상

잠23: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

174) 대쟁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니함이라.

175)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사람 됨됨이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다. 문화와 사회의 영향과 교육과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형성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담당하는 몫이 엄청 중요한 것이다. 누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그는 교육을 장악하고 있다.

위의 성경 말씀에서 “생각”은 “솨아르(שׁוֹבֵד)”를 번역한 것인데 “문지기처럼 행동하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마음의 문지기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합당하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은 “네페쉬(נפש)”이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많이 쓰인 말인데 사람, 인격 또는 생명,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다. 생각은 오관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들로 촉발되어진다. 그 생각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되면 그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형성되고, 위태롭고 더러운 곳으로 인도되면 그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176) 오관을 통하여 접촉되는 것들이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그 실마리는 그의 경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경험은 환경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쟁투를 수행해야 될 재림 교인들은 오관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할

---

175) 사람은 존재와 인격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76) 생각을 주관하기 위하여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77)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세상의 교육과 사회 환경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조성하는 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쟁투는 힘 드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대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1). 오늘의 교육 현상

오늘날 교육 현장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교육으로 꽉 차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교육이 되었다.

이런 현실을 성경은 일찍 잘 계시하고 있다.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속히 이런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하나님을 믿는 바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단은 이미 교회로 침투하여 교회 안에 자기 방법을 심기 시작하였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평계치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

177) 현재 세상이 처해 있는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롬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위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없으니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들이다. 사람이 미물을 숭배하게 되었으니 열만한심한 일인가?

우리교회는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육을 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교육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성 이 전혀 없다. 게다가 사람은 육체뿐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육에 아주 둔감하다. 죽은 자가 감각이 없는 것과 같이 둔감하다.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겠는가?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178) 우리교회가 시킬 제일 중요한 교육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육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

178) 우리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호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벼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6:3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요17: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179)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참 생명과 영생이 동일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으로 계시한다(요5:24,25).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진짜 생명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만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만 소유하고 있는데, 영원한 참 생명에 대하여 그것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180)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나섰으나 그것은 그의 존재의 근거와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떠났기 때문에 존재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존재의 원인을 모르면서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찾은 것은 짐승이 조상이라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허망한가. 성경은 이 사실을 기원전 천년 전에 이미 계시로 밝

179) 영원한 생명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80)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찾은 그들의 존재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혀놓았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날 교육 환경은 바로 이런 사상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환경이다.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한다. 진화론은 사람의 조상을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 2). 현재 세상의 사관

181) 사람의 발생과 그 이어온 발자취를 연구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관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이간의 근본을 다루게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는 눈을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어떤 사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역사의 이해와 해석이 달라진다. 그런데 현재 교육하는 역사관은 진화론 사관이다. 모든 학문을 이 사관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친다. 진화론이 활개 치게 된 것은 종의 기원이 발표된 후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1859년에 출판되었다.

182) 문화사는 모두 지질시대, 선사시대, 유사시대로 나누고, 그것을 진화론적 사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질시대는 크게 "이언" 그 다음이 "대" 그 다음이 "기"로 나눈다. 이언은 은생이언과 현생이언으로 나누고, 은생이언에는 선캄브리아대가 있고 현생이언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 선캄브리아대는 다시 원생대와 시생대로 나누고 원생대에 와서 생물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며, 시생대는 생물이 다소 존재

181)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82) 오늘날 교육되고 있는 역사는 어떤 안목으로 가르칩니다?

했으나 화석이 거의 없는 시기라고 말한다.

소위 현생 이언에 속하는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폐름기로 구분하고,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로 분류한다.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를 포함시킨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지질시대로 하며, 38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최초로 바다와 육지가 생성되었다고 가르치며, 지질시대는 부정합, 생물계 특히 동물계의 급변을 기준으로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있다.

선캄브리아대는 약 38억 년 전부터 5억 7천만 년 전까지이며, 대부분의 화석들이 지각변동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캄브리아대는 바다에서만 생물이 살고 있었으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그때의 생물이라고 주장한다.

고생대는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4천 5백만 년 전까지라 하며, 최초의 육상식물 동물이 출현하고, 삼엽충 갑주어 필석 푸즐리나가 대표적인 화석이라고 가르친다.

중생대는 2억 4천 5백만 년 전부터 6천만 년 전까지라 하는데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가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으로 남아있다고 말한다.

신생대는 6천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라고 한다. 이때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고 주장하고, 화폐석과 매머드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말한다.

이상의 주장이 바로 진화론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역사의 시원(始原)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

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그런 주장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 교과서는 다 그런 이론에 기초하여 저술되었고 우리교회 학교도 그 교과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국정 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183)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교회도 사회 교육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창조와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상들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세뇌되어 있는 것이다.

인류가 발생하고 역사가 진행되는 시대에 대하여서도 진화론적으로 구분하여 가르친다. 그것이 소위 선사시대 역사시대라는 구분이다.

\* 선사시대; 역사 시대구분의 하나로 선사학(先史學)의 대상이 되는 시대. 일반적으로는 문헌사료(文獻史料)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즉 문헌사료에 의하여 썩어진 역사에서 취급하는 시대에 대하여, 19세기 이래 고고학의 발달에 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인류의 원시시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84) 보통 이 용어 속에는 고고학에서 다루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내지 철기시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현존하고 해독이 가능한 문헌사료가 나타나는 시대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시대의 문화, 사회, 경제의 발전단계도 각양각색이니만큼, 이 용어의 개념은 상당히 막연하다.

\* 유사시대; 기록이 있는 시대.

유사시대는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여 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문헌을 통하여 역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

183) 재림성도들도 이런 주장을 별로 저항 없이 듣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4)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그들 스스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선사시대같이 혼란스럽지 않다.

그러나 선사시대는 그들 스스로 말하듯이 이 용어의 개념이 아주 막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위 이 선사시대에는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지 않고 아직도 동물의 지능 상태를 겨우 면한 미개인의 시대라는 개념이다.

과연 그럴까?

185)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창1:26, 27) 믿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완전하고 지혜롭게 창조되었겠는가? 그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시8:5). 그런데 고대 사람을 미개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사상과 정반대의 주장인 것이다. 성경의 계시대로 하면 아담이 가장 지혜로웠고 그 후로 점점 퇴화하였다. 그래서 후세의 지능이나 지혜가 고대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미개한 자들인가? 세상이 말하는 역사의 흔적에 의하여서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수두룩한데 진화론을 믿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교육이 주는 힘이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불가사의한 유적들을 보면 고대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머리가 좋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 사람들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로 나누고 신석기시대에는 사람이 진화하여 지성이 더 발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석

---

185) 과연 옛날 사람이 현재 사람보다 지혜와 능력이 미개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들을 분석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들의 깨어진 모양의 각들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한다. 결국 그것은 신석기시대의 제품인 마제석기보다 훨씬 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것이 연구한 사람들의 공론이라고 한다.

돌을 쌓는 기술도 그렇다. 초기 피라미드를 말기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쌓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원형을 유지하고 남은 것은 다 초기 것이라는 사실이 증거한다.

피라미드의 가장 유명한 것이 기자(Giza)에 있는 쿠프 왕의 것이다. 높이가 146.5m 밑변 하나 길이가 230m이다. 돌의 평균 크기가 2.5톤이다. 쌓은 돌 사이에는 종이 한 장도 들어갈 틈이 없게 쌓았다. 마추피추의 돌 성벽도 그렇다. 지금 기술로 그렇게 쌓을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地盤沈下) 상태도 상상을 초월한 상태이다. 쿠프 피라미드는 약 5,0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5mm정도만 침하했다고 한다. 많이 침하한 것도 13mm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현대 건축에 지반 선택의 교과서로 보고 있는 미국 국회 의사당은 약 200년 되었는데, 15cm 침하했다. 그런데 쿠프의 피라미드는 어떤가!

쿠프의 피라미드를 쌓는데 농한기만을 이용하여, 10만 명의 사람들이 3교대로 20여년에 걸쳐 쌓았다고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록하였다. 그런데 현대의 어떤 학자가 쿠프 피라미드를 쌓는 문제를 계산했는데(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것을 쌓을 만한 인력을 동원하여 일년 내내 쌓아도 760년은 걸리겠다고 말했단다. 그런데 그것을 일년에 농한기만 이용하여 3교대로 한다면  $760 \times 3 = 2,280$ 년이 걸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월등한 사람들 같지 않는가?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중심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데 이것은 화석을 보고 진화적 시간대로 나누는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과 문화적 상태로 보면 급변설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오늘날 21세기에도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부족들이나 아마존 유역 인디오들, 남태평양 여러 오지 섬에 사는 원주민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면 소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시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 서울이나 소위 문명 지대의 국가들이나 도시들과 그 생활 양상이 얼마나 다른가? 만일 이런 경우 어떤 급변하는 천연 현상으로 모두 매몰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유물들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대도시의 유물과 오지의 유물을 발굴해놓고 진화론적으로 평가하면 수 천 년, 수 만 년의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다 동일시대 문화와 생활환경의 차이였을 뿐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처럼 고대에도 천연환경, 문화환경, 생활수준 등등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는데, 어떤 엄청난 천연계의 급변현상이 급격히 그것들을 매몰하고 수 천 년이 지난 오늘날 소위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 만년 수 억년 등등으로 역사

의 기간을 상정(想定)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186)이런 것이 오늘날 교육 현장이다. 옛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시8:5) 성경의 계시와 얼마나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단이 이런 상태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187)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또한 인간을 경쟁 사회로 몰아가는 죽매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경쟁적이며 투쟁적인데, 진화론은 생존을 경쟁으로 해석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논리의 발전으로 진화론에서 계발한 용어들이 오늘날 문화용어들이 된 것 같다.

생존경쟁, 적자생존, 양육강식, 자연도태 등등. 모두 진화론 용어들이다. 물론 이것은 맬더스(Malthus)의 인구론에서 사용한 말들인데 다윈이 즐겨 차용하여 종의 기원에 사용하였다. 인구론이나 종의 기원이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은 당시 사회현상이 그런 사상을 좋아하는 분위기였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아무튼 이 용어들은 인간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는 사상이 깔린 용어들이며, 진화론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상이다. 그래서 사회는 투쟁과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고,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적자(適者)가 되기 위해서 양육강식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는 자는 자연도태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 것이다. 오늘날 교육 현장도 바로 이런 사상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 되었다.

---

186)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 계시합니까?

187) 진화론적 사고방식과 성경의 사고방식이 가르치는 자기 보존의 법칙에 대하여 설명해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진화론과 정반대의 사상을 가르친다. 자기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가르치며,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을 실천해 보이신 것이다.

188)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체계와 투쟁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는가? 이런 진화론이 바탕이 된 역사 구분과 사상체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다만 기독교에서만 찾을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도 오히려 진화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쳐지이다. 우리교회는 우리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이것을 찾아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해야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교회의 책임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쟁투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사상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성경의 역사관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계시한다. 거주 지역과 역사의 연대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행17:26,27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는 인류학(한 혈통), 역사학(연대를 정함), 지리학

<sup>188)</sup>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교육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거주의 경계), 계보학(한 혈통 더듬어)이 들어 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도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이다.

189)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 이 주관하시고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이다.

성경의 족보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

첫째, 인류의 시작과 그 시작의 근본을 밝혀준다.

둘째, 각 개인의 존재 근거를 밝혀준다.

셋째, 민족의 발생과 그 계통을 밝혀준다.

넷째, 메시야 출현의 계통을 밝혀준다.

190) 완전하게 기록된 족보는 뉴3:23-38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 완전하지 않다. 그 진짜 첫 조상이 누구인지 모른다. 우리나라 성씨의 설화들은 난생설, 즉 알에서 나왔다는 설화나, 외래설, 곧 외국 어디서 들어왔다는 설화 등이 지배적이다. 그 알은 짐승들이 두고 잤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설화들을 한국형 진화론이라고 우스개로 말하곤 한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완전한 족보이다.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사람을 존재하게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위에 든 사도행전 17:26은 족보를 따져보라고 말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한

<sup>189)</sup> 성경의 족보는 무엇을 찾기 위한 것이며,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까?

<sup>190)</sup> 완전하게 기록된 족보는 어디에 있으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국 사람들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까지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게서만 태어난다는 확실한 진리를 믿는다면 그들의 조상이 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첫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 대답은 성경을 떠나서 들을 수 없다. 태초에 여호와라 이를 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191)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사관이며, 사단으로 인하여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자 죄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의 투쟁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대쟁투 사관, 곧 구속사관이다. 구속사관이기 때문에 또한 종말 지향적인 역사관이다. 왜냐하면 구속이 완성되는 때가 종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에 입각하여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역사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이런 안목을 뜨게 해야 한다. 그냥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납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린아이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의 수준에 맞는 논리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진화론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사상을 가지고 대쟁투의 역군으로 자랄 것이다. 우리교회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이런 사상을 교육해야 한다.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

191) 성경의 사관을 말해 보십시오.

## 2.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192)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부모로 말미암은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또한 엄마의 젖을 먹고 부모의 돌봄으로 생존해 온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이런 사실이 사람을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생존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요즘은 사회와 문명과 문화를 의지하고 있다. 그들이 의식하지 아니할지라도 사실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요즘보다는 신을 찾아 의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할 자를 찾은 것이 바로 우상이다.

193) 구약성경은 우상과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참으로 바르게 깨달으면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분의 존재성을 선포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결코 다른 이에게 영광을 줄 수 없다. 여호와라 이름 하신 아무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42: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

192) 사람은 그 발생부터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193) 구약성경이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 1).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다.

출3:13-15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 이름은 구약성경에 약 6,500회 사용되었다. 개역 한글판에는 약 5911회 번역되었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194)여호와(יהוה)는 하야(הָיָה)의 명사형이다.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계시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하시다.  
시102:24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 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시102:27 주는 예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호와라는 칭호는 기념칭호라고 성경은 계시한다.

---

194)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아는 바를 말해보십시오.

호12:5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위에 적은 출애굽기 3:14,15에도 같은 말씀이 있다.

기념이라는 말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름이라는 말이다.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존재 양식(樣式)의 기념

둘째, 창조주로서의 기념

셋째, 심판주로서의 기념

넷째,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

(이에 대한 설명은 저의 책 “숨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제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

시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꾸었으며 땅을 베풀었고.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라 이를 하신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주 만상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한다.

골1:16,17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 2). 우상의 발생

195) 우상은 사람이 신으로 숭배하는 신이 아닌 사물이다. 그것이 사람, 천사, 귀신, 물건, 어떤 형상, 심지어 마음의 생각, 이념, 사상, 학설 등등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196)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 그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천사 중 가장 존귀한 존재였던 루스벨이 그렇게 주장한 최초의 존재이다. 그래서 그가 사단이 되었다. 존재자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다.

사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비기리라는 말은 비교할만하다는 말이다. 동등하다는 주장이다.

197) 마4: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사단이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께 요구한 말이다. 이것

195) 우상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196) 우상의 시조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97)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께 한 사단의 요구는 무엇을 드러낸 것입니까?

은 사단의 원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치고 자신이 경배를 받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호와로부터도 경배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상이 탄생하였다.

198) 그러나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단호히 선언하신다.  
사42: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48:11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을 확보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 3). 우상의 도전

계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99) 루스벨이 하나님께 도전하여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도전의 정신이 광야에서 예수께 사단 자신에게 절하라는 말로 온 우주에 완전히 폭로되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제치고 경배를 차지하려는 도전이다. 창조주 외에는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피조물인 사단이 어떻게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존경을 할 수 있어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8)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엇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199) 우상은 경배를 받기위하여 어떤 수단을 동원하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남의 아들을 보고 자기에게 효도하라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요구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는 존재는 수단을 쓴다. 그것이 폭력일 수도 있고 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간사한 속임 수를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사단은 이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

이 싸움은 사단이 땅으로 쫓겨 와서 여자를 미혹한 이 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대쟁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배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있다.

200)이 싸움에는 영혼불멸론까지 첨가되어 있다. 영혼불멸론은 이 경배 싸움의 부산물이다. 여호와만 불멸이다. 그런데 사단은 피조물도 불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창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존재와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사단은 왕권을 장악한 사람들을 사주(使嗾)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강제로 경배하게 하였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력에 맞서서 투쟁했다.

마4: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단의 이런 도전에 주님은 참된 경배에 대하여 대답하신다. 마4:10,11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

<sup>200)</sup> 영혼불멸론을 주장한 배후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201)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면 마귀는 떠난다. 바로 이 경배의 싸움이 계시록 13장 14장의 내용이다. 계12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예언한 것이 13, 14장이다. 그것은 바로 경배의 투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계13장에는 경배라는 말이 5회 나타난다(4,8,112,15). 이것은 모두 용, 짐승,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강압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도 교육을 통하여 이것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화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적 강압이 아니라 교육적 강요이다.

계14장에는 경배라는 말이 3회 나오지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꼭 한 번만 나온다(7절). 두 번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를 결과를 표현하는 말에 나온다(9,11).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배를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한 마디로 족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마디는 우주적 권위가 있는 말이다.

202)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의 역사적 모형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이다. 여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를 경배하는 절일(節日)을 정하여 공

201) 계시록 13, 14장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보십시오.

202) 세 천사의 기별의 역사적 모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포하고 다 금송아지에게 절하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재 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셨다. 거기에는 옛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사실을 인하여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었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모형이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간 사이에 겨우 40일도 못되어서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선포하면서 그 송아지를 경배할 한 날을 정하여 선포하고 그 날에 송아지를 경배하며 춤추고 질탕하게 놀았다. 그런 일로 출19장부터 23장에서 약속하고 24장에서 피를 뿌려 조인한 언약이 깨드려졌다. 그런 언약아래 주신 계명을 새긴 돌비를 깨뜨렸다.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확실한 증거인 안식일 대신에 우상을 위한 절일을 정하여 우상을 경배한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천사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의 표상이다.

모세는 금 우상을 갈아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금송아지를 갈아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한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모세는 래위인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도륙하라고 했다.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3천 명 가량되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형이다. 셋째 천사의 기

별은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밤낮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203)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동원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능력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는다. 마치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이 크다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했던 것과 같다. 이런 일을 추진한 사단이 최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

204)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세상 문화에나 소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통하여서도 자행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조직된 교회들은 모두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얼마 전 서거한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을 못 믿을 이론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록을 문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위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언이폐지하고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사실을 문제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예수 이름으로 조직된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

---

203)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204) 오늘날 기독교들은 창조주를 올바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으며 지킬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것이다. 그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경배할 절일을 정하여 선포한 것처럼 창조주의 창조와 창조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폐하고 창조주와 아무런 상관없는 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여 예배하러 모인다. 역사적으로 연구하면 그날은 바로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는 태양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결국 금송아지 예배를 하는 것이다.

금송아지를 경배하면 마시고 취하여 춤추고 노래하며 소란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 교회 예배에서 볼 수 있지 않는가?

205) 이런 우상의 도전에 응전하는 것이 우리교회이며 이 투쟁이 바로 대쟁투인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참으로 창조주를 경배하고 성소정결봉사로 밝혀진 바른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대쟁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의 책임을 넉넉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현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의 인격의 모습과 생활의 태도로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봇을 놓는다.<sup>206)</sup>

---

205) 우리의 대쟁투는 누구를 대항하며, 누구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206) 이 글을 읽고 우리교회가 특별한 교회임을 확신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2005년 8월 22일(월) 8:24pm. 終

성구 100절 뽑아 보기]

1. 삼위일체 하나님
2. 예수님
3. 성령님
4. 성경
5. 복음
6. 성소
7. 심판
8. 재림
9. 교회
10. 창조
11. 사람

## 1. 삼위일체 하나님

- 1).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2).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3).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맴으며 땅을 베풀었고.
- 4). 신32:6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 5).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6). 사43: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7). 롬33:4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 8).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9). 전12:1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 “창조자”라는 말은 원문으로 복수(複數)이다.

10). 롬11:7,8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 계시된 사실만큼 알 수밖에 없다.

## 2. 예수님

1).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4). 빌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 뉘1: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

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6).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마16:16,17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8). 요일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9). 앱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0). 롬1:1-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3. 성령님

1). 요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

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2). 히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 3). 요16:7-11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 4). 요16:13-15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 5). 고전2:13,14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 6). 앱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 치심을 받았느니라.
- 7). 롬8:26,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

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를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9).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0).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성령이시다.)

#### 4. 성경

1). 요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2). 딤후3:15-17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3). 벤후1:20,21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 4). 민12: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 5). 시12: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 6). 요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7). 행5: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 8).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 9). 사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짹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요즘 논란이 많은 구절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함)
- 10).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 5. 복음

- 1). 롬1:1-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2). 뉴2:10,11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양겔리온’인데 위의 좋은 소식이 바로 유양겔리온이다.)
  - 3).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4). 롬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5). 갈3:8,9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 6). 히3:17-4:2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18 또 하나님 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1
-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7). 딥후1:9-11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8). 벤전1:23-25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9).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렸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0). 마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6. 성소

1). 출25:8,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 2). 대상28:19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 3). 히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 4). 렘17:12,13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 5). 시96:5,6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 6). 시102:19-21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20 이는 간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 7). 시73:16,17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 8). 요2:19-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히
- 9). 고전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欲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 9:11,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 7. 심판

- 1). 시9:7,8,16 여호와께서 영영히 앓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얹혔도다. (여호와는 의로운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할 일로 함정에 빠진다. 현대인의 성격)
- 2). 시7:8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 3). 롬14:10-12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끓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 4). 벤전4:4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 5). 요5:22,27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

니라.

- 6). 요3:18,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별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7).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8). 애3:42,43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륙하사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 9). 호9:1212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 10). 램2: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11). 롬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 12). 잠1:29-31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31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 13). 마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 8. 재림

- 1). 요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 2). 행1:10,11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 3). 마24:29-31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4). 계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 5). 유1:14 아담의 칠 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 6). 사66: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

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7). 살후1:7,9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8). 살전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죽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9). 계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0). 마24:33-35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9. 교회

1). 마16:16-18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

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2).골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 3).엡1:22,23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 4).고전1:2,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5).딤전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 6).행12: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 7).엡5:29-32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 8).고전12:28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돋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 9).고전14:26 그런즉 형제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

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10). 히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1). 계3:20-22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 10. 창조

1).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시33:6-9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셨도다.

3).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으며 땅을 베풀었고.

4). 골1:15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5). 시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6). 창5:1,2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터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7). 시8:4-6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8). 고후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9).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 사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 12. 예언

1). 사46: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2). 벤전1:10-12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

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3). 벤후1:19-21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4). 마24:21-25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5). 마24:14,15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6). 살후2:2-4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 7). 살전5:19,20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 예언을 멸시치 말고.
- 8).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14:29).
- 9). 딤전1: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 10). 계10:6,7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 13. 거듭남

- 1). 마18: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2). 요3: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 3). 벤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벼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 4). 앱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 5). 요6:63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 6). 벤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 7). 벤전1:3,4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 8). 요1:12,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 9). 롬8:5-9 육신을 죽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죽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10). 갈5:16,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죽애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